

Session 7 Jesus' Early Ministry in Jerusalem and Samaria (Jn. 3-4)
제 7 장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 (요 3-4 장)

I. OVERVIEW OF JOHN 1-4

요한복음 1-4 장 개관

- A. Only John describes Jesus' first visit to Jerusalem (Jn. 2:13), Judea (Jn. 3:22), and Samaria (Jn. 4:4).

오직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신 일과 (요 2:13), 유대 땅 (요 3:22), 사마리아에 방문하신 일(요 4:4)을 기록하고 있다.

- B. In Jerusalem, He cleansed the temple and did many miracles—the city was in an uproar.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 도성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 C. In this session we see conversations that Jesus had with two different types of people (Jn. 3-4). Jesus spoke with Nicodemus, a member of the Sanhedrin and a representative of rabbinic Judaism. Next He spoke with a Samaritan woman who probably had a reputation associated with immorality.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살펴본다 (요 3-4 장).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셨으며,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며 랍비 유대교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음행과 연관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진 이였을 것이다.

II. JESUS' CONVERSATION WITH NICODEMUS (JN. 3:1-21)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요 3:1-21)

- A. Nicodemus was a Pharisee and a member of the Sanhedrin (Jn. 3:1; 7:50-51). Jerusalem was stirred up after Jesus cleansed the temple and did miracles that caused many to want to follow Him.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 (요 3:1; 7:50-51).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소란스러워졌고, 많은 이들은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다.

¹*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²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n. 3:1-2)

¹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²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1-2)

- B. Jesus told Nicodemus that he must be born again (Jn. 3:3-6). Most Jews assumed that they were a part of the kingdom by virtue of being born in a Jewish family (unless they chose wickedness).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3:3-6).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³...“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⁴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⁵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Jn. 3:3-6)

³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⁶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3-6)

1. Many believe that being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refers to natural birth and spiritual birth. Water refers to the amniotic fluid that breaks from the womb shortly before childbirth.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육신적, 영적 태어남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물은 아기가 태어날 때 자궁에서 나오는 양수를 말한다.

2. Others propose that being born of the water and spirit *both* speak of the new birth. The Old Testament often used water to speak of spiritual cleansing and empowering when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the Spirit (Isa. 32:15; 44:3-5; Jer. 2:13; 17:13; Ezek. 47:9; Zech. 14:8). In Ezekiel 36:25-27, water and spirit come together to signify salvation.

또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모두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구약은 종종 물을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강건케 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사 32:15; 44:3-5; 55:1-3; 렘 2:13; 17:13; 겔 47:9; 속 14:8). 겔 36:25-27 절에서 물과 영은 함께 정결케 함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3. The issue between flesh and spirit is not an issue of noble and sinful expressions of human nature. The new birth is much more than making a new resolve to make godly choices.

여기서 육과 영의 문제는 사람이 고귀한 행동을 하는지 최악된 행동을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 그 이상(역자주: 새로 태어남, 거듭남)을 의미한다.

- C. Jesus gently criticized Nicodemus for not understanding these things since he was “the” teacher of Israel (v. 10). His knowledge of the Scriptures should have given him understanding of God’s promise to give His people a new heart by the work of the Spirit and that no one can come to God in his own strength or righteousness without God’s gracious help and cleansing.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드럽게 꼬집어주셨다 (10 절).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약속과, 어떤 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과 정결케 하심 없이 자신의 힘이나 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야 했다.

⁹Nicodemus answered and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¹⁰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Are you the teacher of Israel, and do not know these things?” (Jn. 3:9-10)

⁹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¹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 3:9-10)

- D. Jesus explained that He could speak about heavenly things because He had descended from heaven and was presently in a dynamic connection with heaven and His Father (Jn. 3:13-16).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하늘의 것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음을 설명하셨으며, 이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여전히 하늘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설명하셨다 (요 3:13-16).

¹³No one has ascended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¹⁴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¹⁵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¹⁶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n. 3:13-16)

¹³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한글 KJV: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¹⁴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¹⁵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⁶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3-16)

1. Jesus associated the new birth to the time when Moses lifted up a bronze snake (Num. 21:4-9). Deaths from snakebite had broken out on Israel due to their complaining. They were to *look* at a bronze serpent lifted up on a wooden pole—all who *looked with faith* were healed.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나는 것을 모세가 뱀을 든 일과 연결시키셨다 (민 21:4-9).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으로 인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선 장대 위에 올려진 뱀을 쳐다봐야만 했다. 이를 믿음으로 올려다 본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다.

2. Jesus implied that it should not be new to Nicodemus that God should give new life by looking in faith to a figure on a wooden pole to receive it. The serpent was a picture of sin, and the pole was a picture of the cross. Nicodemus knew this story well. When Jesus sai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the Son of Man will be lifted up,” it was Jesus’ first prediction of His death—by crucifixion (Jn. 8:28; 12:32, 34).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믿음으로 나무 위에 올려진 대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이 니고데모에게 낯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뱀은 죄를 나타내며, 장대는 십자가를 나타낸다. 니고데모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요 8:28, 12:32, 34).

3. Jesus clarified why He was to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예수님께서서는 왜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셔야 하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으며,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4. We see Jesus as the One who *reveals heavenly things* (Jn. 3:13). Jesus descended from heaven several times (Josh. 5:13-15; Dan. 3:24-27), so He was qualified to teach heavenly things.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일들을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 (요 3:13).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수 5:13-15; 단 3:24-27). 따라서 그분은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였다.

5. We see Jesus as the *suffering and exalted Savior* (Jn. 3:14). To be lifted up includes lifted up on the cross to death and then lifted up from the grave to sit at the Father's right hand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며 높임 받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다 (요 3:14).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려 죽임을 당하는 것과, 무덤에서 올려져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의미한다.

- E. The Father did not plan the incarnation of Jesus to judge people, but to provide salvation through His death. People were under judgment long before the incarnation occurred. They were already desperately in need of a Savior before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on His saving mission.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도록 하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성육신이 있기 훨씬 전부터도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구원자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¹⁷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¹⁸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¹⁹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the light [incarnate Chris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²⁰Everyone practicing evil hates the light...lest his deeds should be exposed.” (Jn. 3:17-21)

¹⁷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한글 KJV: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⁸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한글 KJV: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글 KJV: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¹⁹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²⁰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 (요 3:17-21)

1. Jesus came into an *already* lost and condemned world to save some. He did not enter a neutral world to save some and condemn others.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provided a way by which people need not perish. The Father's purpose is salvation by believing in His Son.

예수님께서는 이미 잃어버리고 정죄받은 세상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 (역자주: 그분이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땅에 오신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이 멸망치 않을 길을 베푸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다.

2. The person who does not believe in Jesus stands condemned already (Jn. 3:18, 36) because of refusing to believe on the One whom God sent at such a great cost to save them. Many view human beings basically as being “neutral,” not sinful. So if person is pretty good, then why does he need Jesus to save him? If people are neutral, they can take salvation or leave it.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심판)를 받았다 (요 3:18, 36).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도록 보내신 분을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은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만일 어떤 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사람이 “중립적”인 존재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 F. People refuse salvation for moral reasons—they love darkness and hate the light (Jn. 3:19-20).

사람들은 도덕적인 논리를 근거로 구원을 거절한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 (요 3:19-20).

III. JOHN THE BAPTIST'S RESPONSE TO JESUS' MINISTRY (JN. 3:22-30)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요 3:22-30)

- A. Jesus was with His disciples who were baptizing in Judean countryside (Jn. 3:22), summer AD 27. The location of Aenon (lit. springs) near Salim points to a site a few miles west of the Jordan River.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외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요 3:22), 이 때는 AD 27 년 여름이었다. 살렘 근처의 애논(문자적인 의미: 샘)이라는 설명은 요단 강 서쪽 몇 마일 떨어진 곳을 말해준다.

²²After these things Jesus and His disciples came into the land of Judea, and there He remained with them and baptized. ²³Now John also was baptizing in Aenon near Salim... (Jn. 3:22)

²²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²³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 (요 3:22-23)

- B. A dispute arose between John's disciples and others over the ceremonial washings that God required. Thus, they were arguing about issues related to purification or how to best be dedicated to God (Jn. 3:25) and were concerned about the decrease of John's ministry influence (Jn. 3:26).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결 예식에 대해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정결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 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요 3:25).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요 3:26).

²⁵There arose a dispute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ication.

²⁶And they came to John and said, "...He [Jesus] is baptizing, and all are coming to Him!"

²⁷John...said, "A man can receive nothing unless it has been given to him from heaven...

²⁹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³⁰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Jn. 3:25-30)

²⁵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한글 KJV: 정결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²⁶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²⁷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 ²⁹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³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 3:25-30)

1. Jesus was revealed by John the Baptist as the Bridegroom God (Jn. 3:29; cf. Isa. 54:5; 62:4-5; Jer. 2:2; 3:20; Ezek. 16:8; Hos. 2:16-20).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며 하나님임을 밝혔다 (요 3:29; 비교. 사 54:5; 62:4-5; 렘 2:2; 3:20; 겔 16:8; 호 2:16-20).

2. Jesus is a Bridegroom—thus, He feels, thinks, and acts as a Bridegroom forever.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 따라서 그분은 영원히 신랑의 감정과 생각, 신랑의 행동을 하신다.

3. *Jesus has the Bride*—From ages past, the Father promised to give Jesus a Bride as His inheritance, and Jesus was committed to purchase her on the cross. God's commitments could not be stopped. The enemy wants us to believe the Church is in his hands. The devil does not have the Bride. But Jesus our Bridegroom King has the Bride. He knows how to protect her.

예수님은 신부를 취하신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신부를 그분의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행하기로 한 일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 우리의 대적은 교회가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어버리기를 원한다. 사단은 신부를 취할 자가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분은 우리의 신랑이며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신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4. John functioned as a *friend of the Bridegroom*. This speaks of having a specific message and attitude in ministering to people. The message is to make known Jesus' desire, beauty, and commitments as the Bridegroom God and to call people to love Him with all their heart.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했다. 이는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인 메시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갈망과 아름다움,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의 헌신을 알리며, 사람들이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 C. The issues of dedication to God and one's place or decreasing ministry are both answered in seeing the Bridegroom God's burning desire, beauty, and sovereignty and commitments.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문제와, 위치 혹은 사역이 줄어드는 문제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불타는 갈망과 아름다움, 주권과 그분의 헌신을 목격할 때 모두 해결되었다.

- D. A person's sphere of influence is given by God sovereignly (Jn. 3:27). We cannot get or keep a position by strife. John rested in God's sovereignty (1 Cor. 4:7) and recognized that God had different assignment for each as well as different times and seasons for their spheres of influence.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다 (요 3:27). 우리는 노력을 통해 위치를 얻거나 지킬 수 없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했으며 (고전 4:7),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임무와 서로 다른 영향력의 시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 E. A dual revelation: We are to see the riches of His worth to us and the riches of our worth to Him.

두 가지 깨달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 F. John the Baptist found approval from the Bridegroom's voice, not from men's applause. He modeled how to carry his heart and operate in the spirit of a friend of the Bridegroom by not getting between the Bride and Bridegroom in drawing attention to oneself.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통해 안정감을 누렸다. 그는 어떻게 신랑의 친구의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신부와 신랑의 사이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았다.

- G. As we see the Bridegroom in His beauty and His work for us and in us, it frees us from our preoccupation with our weakness and struggles and shifts the attention off ourselves and the size of our ministry impact. In prayer we declare, "You are a Bridegroom and have a Bride."

우리가 신랑이신 그분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서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함과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자유케 되며, 또한 우리는 시선을 자기 자신이나 사역의 영향력의 크기에서 돌리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선포한다, "당신은 신랑이시며, 신부를 취하는 분이십니다."

IV. JESUS' PREEMINENCE (JN. 3:31-36) 예수님의 탁월하심 (요 3:31-36)

- A. Jesus has greater authority and supremacy than any former prophet because He is from above. Jesus is the only man who could speak with full authority and understanding of heavenly things. Why? Because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in the heavenly sphere (Jn. 3:31-32).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에, 이전의 어떤 선지자보다 큰 권세와 탁월함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하늘의 일들을 충만한 권세와 이해함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는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요 3:31-32).

³¹*H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he who is of the earth is earthly and speaks of the earth. H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³²*And what He has seen and heard, that He testifies; and no one receives His testimony. (Jn. 3:31-32)*

³¹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³²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 3:31-32)

- B. Any who receives Jesus' testimony about salvation believes that the Father is truthful (Jn.3:33-35).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자이다 (요 3:33-35).

³³*He who has received His testimony has set his seal to [certified, NKJ] this, that God is true.* ³⁴*For H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He gives the Spirit without measure.* ³⁵*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 (Jn. 3:33-35, NAS)*

³³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한글 KJV: 확증하느니라] ³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³⁵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 3:33-35)

1. *Spirit without measure*: God has spoken to His people through different prophet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history. Each received a measure of the Spirit's power according to the assignment God gave them. But to Jesus God gave the Spirit without any measure of limit.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걸쳐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각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령의 권능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부여주셨다.

2. This is what validates the truth of Jesus' words. At His baptism, the Spirit rested on Him and remained permanently on Him (Jn. 1:32-33), proving His deity, heavenly origin, and the Father's love for Him (Jn. 3:34). We must listen to Jesus because He is no ordinary prophet.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은 그분 위에 머물렀고, 영원히 그분 위에 계심으로 (요 1:32-33) 그분에게 신성과 하늘의 것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요 3:34).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 **Set his seal:** Seals indicated guarantees and ownership.

인쳤느니라: 인은 보장과 소유권을 말한다.

4. **God is true:** Jesus so exactly revealed God's words that to believe Jesus is to believe God and to disbelieve Jesus is to disbelieve God (1 John 5:10).

하나님이 참되시다: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다 (요일 5:10).

5. **Given all things:** God entrusted all things into Jesus' hands. This points out the dependence of Jesus on the Father—one of John's major themes.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therefore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The Father gave Jesus the authority to impart the Spirit to others (Acts 2:33; cf. Jn. 15:26; Lk. 24:49).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실 것을 말해주며,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두셨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다른 이들에게 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행 2:33, 비교. 요 15:26; 눅 24:49).

- C. John concludes by contrasting two responses to Jesus (Jn. 3:36). Faith in Him results in eternal life (Jn. 1:12; 3:3, 5, 15, 16), while refusing His leadership and salvation results in God's wrath.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대비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며 이 부분을 마친다 (요 3:36).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며 (요 1:12; 3:3, 5, 15, 16), 그분의 리더십과 구원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

³⁶*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verlasting life; and he who does not believe the Son sha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n. 3:35-36)*

³⁶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1. Because God made available so great a salvation, therefore unbelief is seen by God as an expression of disobedience (Jn. 3:18). God's wrath is His personal response of a God who comes to His own world and finds few who want anything to do with Him. Such people are "condemned already" (v. 18).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두셨기에, 이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으로 보인다 (요 3:18).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자신의 땅에 오실 때 아주 적은 수만이 그분을 원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분이 보일 반응이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18 절).

2. The truth of God's wrath is the most offensive truth in Scripture. Many seek to explain it away. This can only be done by dismissing hundreds of passages that refer to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는 수백 개의 구절들을 무시해버려야만 한다.

3. Judgment abides on unbelievers now in the present tense (Jn. 3:18, 36; Rom. 1:18).

심판은 지금 현재 시제로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임해있다 (요 3:18, 36; 롬 1:18).

V. JESUS' MINISTRY IN SAMARIA (JN. 4:1-42)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요 4:41-42)

- A. We can learn much about how to lead people to Jesus in this chapter. Jesus spoke to a Samaritan woman who was despised by orthodox Jewish leaders like Nicodemus.

우리는 이 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끄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즉 니고데모 같은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이 멸시했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 B. To avoid premature trouble due to growing popularity, Jesus returned to Galilee, going through Samaria (Jn. 4:1-4). Some Jews walked *around* Samaria. Jesus *needed* to go *through* it, probably because the Spirit led Him, so He could speak to the Samaritan woman.

예수님은 사역이 시기상조로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요 4:1-4). 어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걸어갔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수 있었다.

¹Therefore, when the Lord knew that the Pharisees had heard that Jesus made and baptized more disciples than John ²(though Jesus Himself did not baptize, but His disciples), ³He left Judea and departed again to Galilee. ⁴But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Jn. 4:1-4)

¹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²(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³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1-4)

- C. The Samaritans had a mixture of Judaism and heathenism (2 Kgs. 17:26-41). Samaritans refused to recognize Jerusalem as the place of worship and chose their sacred Mount Gerizim.

사마리아의 종교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섞여 있었다 (왕하 17:26-41).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대신 그리스심 산을 예배 장소로 인정하고 있었다.

- D. Israel's King Omri built his new capital in the city of Samaria (1 Kgs 16:24). Later, the name Samaria also came to describe the district around the city. The Assyrians defeat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n 721 BC, deported many of the Jewish people to foreign lands, and imported idol-worshipping foreigners who intermarried with the Israelites who were not deported. The Samaritans built a worship center on Mt. Gerizim next to Shechem around 400 BC.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정했다 (왕상 16:24). 이후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도시 인근 지역을 일컫는 단어가 되었다. 앗수르인들은 BC 721 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들여왔으며, 이들은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BC 400 년 근처에 세겜 옆의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세웠다.

- E. The woman was at the well in the city of Sychar in Samaria (Jn. 4:5-26) which is still a famous well dug by Jacob. The site i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and the deep spring still flows. The sixth hour would have been noon. Jesus shared our fatigue and thirst in His humanity (Heb. 4:15-16).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다 (요 4:5-26).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현재까지도 유명하다. 이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이며, 깊은 샘에서 아직도 물이 흘러 나온다. 여섯 시쯤은 정오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피곤함과 갈증을 겪는 분이였다 (히 4:15-16).

⁵So He came to a city of Samaria which is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that Jacob gave to his son Joseph. ⁶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from His journey, sat thus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noon]. (Jn. 4:5-6)

⁵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⁶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정오]쯤 되었더라 (요 4:5-6)

- F. The Jews regarded the Samaritans as unclean heathen idolaters. Women did not usually draw water alone in the heat of the day. It is assumed that she avoided others as she was a social outcast related to her immoral reputation—five husbands and living with a sixth man outside of marriage (4:18).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로 여기고 있었다. 여인들은 보통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길으러 오지 않았다. 아마도 음행과 연관된 좋지 않은 평판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며 사람들을 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녀에게는 5 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는 결혼과 관계없이 6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다 (4:18).

⁷A woman of Samaria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⁸For His disciples had gone away into the city to buy food. ⁹Then the woman of Samaria said to Him, "How is it that You, being a Jew, ask a drink from me, a Samaritan woman?" For Jews have no dealings with Samaritans. (Jn. 4:7-9)

⁷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⁸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⁹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 4:7-9)

- G. Jesus implied that God had a greater gift for her—eternal life by the indwelling Spirit with its cleansing and refreshing grace (Jn. 4:10-14; 7:38-39; cf. Isa. 1:16-18; Ezek. 36:25-27; Zech. 14:8). If we knew who He really is (Jn. 4:10), we would worship more zealously even as the angels who see Him.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이 있음을 암시하셨다. 이는 영생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요 4:10-14; 7:38-39; 비교. 사 1:16-18; 겔 36:25-27; 스 14:8). 우리가 만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요 4:10), 우리는 그분을 바라봤던 천사들처럼 그분을 더욱 열심으로 예배했을 것이다.

¹⁰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who says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¹¹The woman said to Him, “Sir,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then do You get that living water? ¹²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Jn. 4:10-12)

¹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¹¹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¹² ...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요 4:10-12)

- H. Jesus described this water as springing up within the heart by the Holy Spirit who gives eternal life. *Drinks* is a continuous action verb in the Greek. *Never thirst* is the promise of a heart satisfied in God. Jesus spoke of a fountain within a born-again believer (Jn. 4:14; 7:37-38). He described coming to a place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where we do not live thirsting in a negative way.

예수님은 이 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설명하셨다. 마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 4:14; 7:37-38). 그분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 않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¹³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Whoever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¹⁴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fountain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¹⁵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may not thirst, nor come here to draw.” (Jn. 4:13-15)

¹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¹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¹⁵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 4:13-15)

- I. Jesus asked her to call her husband since it would have been improper for a stranger to give a valuable gift to a woman without her husband being present. She was surprised and stirred by Jesus knowing about her marital relationships (Jn. 4:16-19) and concluded that Jesus must be a prophet.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이는 낯선 사람이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놀라고 흥분했으며 (요 4:16-19), 예수님이 선지자임에 틀림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¹⁶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¹⁷ The woman answered and said, “I have no husband.” Jesus said to her, “You have well said... ¹⁸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whom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¹⁹ “Sir, I perceive that You are a prophet.” (Jn. 4:16-19)

¹⁶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¹⁷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¹⁸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¹⁹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16-19)

- J. Jesus highlights two requirements in worshipping or seeking God—in spirit and truth. We must worship and seek God on His terms, not according our traditions with wrong paradigms. God is spirit—not flesh—thus He is invisible and essentially unknowable without the aid of the Spirit.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찾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 영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되, 우리의 전통이나 잘못된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 영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

²³ *But the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to worship Him.* ²⁴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Jn. 4:23-24)

²³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²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1. **Worship in spirit:** This includes worship flowing from a sincere heart, by the aid of the Spirit, and centered on God—its source and goals are spiritual.

영으로 예배함: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둔 예배를 말한다. 예배의 원천과 대상은 영적인 부분이다.

2. **Worship in truth:** This includes worship that is according to the *truth of who God is*—God is our Father and Jesus is our Bridegroom King. We approach a tender father differently than a harsh task master. It is worship according to the *truth of who we are in God*—we are sons of God and the bride of Christ and are clothed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진리로 예배함: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에 따른 예배를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왕이시다. 우리는 엄격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에게 나갈 때와 부드러운 아버지에게 나갈 때 마음 가짐이 다르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에 따른 예배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 K. Jesus referred to a proverb relating to harvest (Jn. 3:35). Four months was referred to as an approximate time between sowing and reaping. The sowing had taken place, and the harvest was to come. This proverb may have meant “there is no hurry” to work because one *still* had four months, but Jesus was saying that harvest time had come. The seed may be planted, and there is a certain time of waiting that cannot be rushed as the growth of a seed cannot be hurried. However, the disciples needed to have a sense of urgency.

예수님은 추수와 연관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요 4:35). 네 달은 씨를 심고 추수하기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이었다. 씨를 심으면, 추수를 기다리게 된다. 이 속담은 아직 네 달이나 남았으니 “성급하게” 일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씨앗이 심겨지면,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앞당길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했다.

³⁵ *Do you not say, “There are still four months and then comes the harvest”?...lift up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for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Jn. 4:35)

³⁵ 너희는 네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 L. The Samaritan woman spoke of Jesus to others, and many in her city believed (Jn. 4:25-30, 39-42).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이 동네의 많은 이들이 믿었다 (요 4:25-30, 39-42).

³⁹ *And many of the Samaritans...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rd of the woman... ⁴⁰So when the Samaritans had come to Him, the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and He stayed there two days. ⁴¹And many more believed because of His own word." (Jn. 4:39-41)*

³⁹ ...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⁴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⁴¹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39-41)